

#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7 년 7 월 23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917-622-2471

<http://tltcnyc.org/>

#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7월 23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하느님과 무신론" (시, 정연복)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행복한 혁명가" (시, 체 게바라)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6,43-49

화두: "현재 내 믿음, 신념의 토대(foundation)는 어느 정도 튼튼한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란상

"선택" (시, 체 게바라)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민들레처럼" (민중가요)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 한 마음 한 노래 (시)

### 하느님과 무신론

하느님을 믿든  
무신론을 신봉하든

남들이 간섭할 수 없는  
저마다의 자유다.

하느님을 믿어서  
사랑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참 좋은 일이다

무신론을 고집해  
살아가는 일에 더 충실해진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이 자라지 않고

무신론이 옳다고 자신하면서도  
진실한 삶의 발전이 없다면

그런 믿음, 그런 신념은  
무용지물이다.

(시, 정연복 - 낭독: 장동인)

## 한 마음 한 노래 (시)

### 행복한 혁명가

쿠바를 떠날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씨를 뿌리고도  
열매를 따먹을 줄 모르는  
바보 같은 혁명가라고.

나는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그 열매는 이미 내 것이 아닐뿐더러  
난 아직 씨를 뿌려야 할 곳이 많다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혁명가라고.

(시, 체 게바라 - 낭독: 김웅)

##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6,43-49

화두: “현재 내 믿음, 신념의 토대(foundation)는 어느 정도 튼튼한지?.....”

일자: 2017년 7월 23일

6:43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6:44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6:45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6:46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6:47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겠다. 6:48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6:49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큰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6:43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nor does a bad tree bear good fruit. 6:44 Each tree is recognized by its own fruit. People do not pick figs from thornbushes, or grapes from briars. 6:45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 and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6:46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6:47 **I will show you what he is like who comes to me and hears my words and puts them into practice. 6:48 He is like a man building a house, who dug down deep and laid the foundation on rock.** When a flood came,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but could not shake it, because it was well built. 6:49 But the one who hears my words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on the ground without a foundation. The moment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it collapsed and its destruction was complete."

## 한 마음 한 노래 (시)

### 선택

적의 급습을 받은 동지 하나가  
상황이 위급하다며 지고 가던  
상자 두 개를 버리고  
사탕수수밭 속으로 도망가버렸다.  
하나는 탄약상자였고  
또 하나는 구급상자였다.

그런데.  
총탄에 중상을 입은 지금의 나는  
그 두 개의 상자 가운데  
하나밖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과연  
의사로서의 의무와  
혁명가로서의 의무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깊은 갈등에 빠졌다.

너는 진정 누구인가?  
의사인가?  
아니면,  
혁명가인가?  
지금  
내 발 앞에 있는  
두 개의 상자가 그것을 묻고 있다.

나는  
결국 구급상자 대신  
탄약상자를 등에 짊어졌다.

(시, 체 게바라 - 낭독: 란상)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221 민들레처럼

Am Dm<sup>6</sup> Am A Dm E<sup>7</sup>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한다 내가 숨에 새긴 불타는 두 혼  
 모질고 모진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두 생의 길에

Dm Am 1. Dm<sup>6</sup> E<sup>7</sup>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 대도 민들레처럼  
 은몸부딪히며 살아야한다

2. E<sup>7</sup> Am

민들레처럼

G Am A Dm E<sup>7</sup>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혼하

Am A Dm G C E<sup>7</sup>

고 너른들 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아 -

Am Em Dm E<sup>7</sup>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꽃씨가 되어 아 -

Am Dm E<sup>7</sup> F E<sup>7</sup> Am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두 혼으로

##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와 착취가 만연하고

그것이 체제화되어 갖가지 악과 범죄가 만연하여 힘없는 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러한 악과 범죄에 피해자로, 방관자로, 가해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내 안에도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자기중심적인 태도, 가식, 거짓, 질시,  
욕심, 욕망, 교만, 악한생각 등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슬프게 하지만,

때론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의 모순을 무시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결국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그러다 우리가 유혹과 욕심에, 때론 시련과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거든

꺼져가며 연기 피우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불길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서로 간에,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보살핌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뒤에는 우리 서로가 든든히 버티고 있음을,

그런 우리 뒤에는 하느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심을,

그러한 든든함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사랑하고 기쁘게 희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